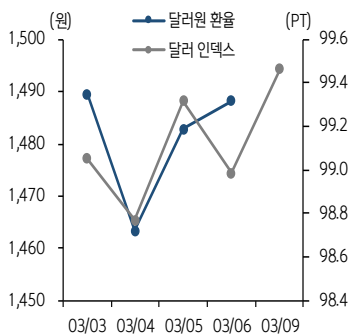


갑자기 1,500원 시험대 오른 달러-원

FX Talk & Insight : 금주 1,480~1,510원 전망

미국-이스라엘의 위험한 도박에 글로벌 경제 및 금융시장이 격랑에 휩싸이며 요동치는 국면. 이란이 물귀신 작전으로 중동 전역으로 반격의 범위를 넓히면서, 에너지 공급망 통해 세계 경제가 더 깊은 수렁을 향하는 중. 중동 긴장 완화를 시사하는 구체적 증거는 아직 없으며, 협상 국면 전환 또는 출구 향하기까지는 유가 및 환율 상방 위험에 노출. 모스타바를 이란 차기 지도자로 결정하자 중동사태 장기화 불안감 커지고, 유가 급등하며 환율도 1,500원 넘나들 가능성 커져

외환시장



마치 핵 협상이 결렬되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을 공습하였다. 베네수엘라를 마두로 대통령의 체포(?)로 그쳤지만, 이란에서는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를 사살하며 응징의 수위를 극한으로 올리는 모습이다. 물론 지난해 미국-이스라엘의 절대적인 군사력 우위가 확인된 만큼, 힘대 힘으로 부딪히면 비교적 단기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소강국면에 들어설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다. 하지만 이란 승계 구도 결과 트럼프의 생각과 달리 강경파가 집권할 경우, 미국과 응전을 불사하며 예상보다 긴 소모전으로 전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불확실성이 여전히 상당하다.

문제는 중동이 전세계 원유 생산의 약 1/3을 차지하는 특수한 지리적 위치에 있다는 점이다. 만일 중동 사태가 장기화되면 국제유가의 고공행진으로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이 글로벌 경제와 금융시장을 억누를 수 있기 때문에 환율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 밖에 없다. 특히 한국의 경우 수출이 경제의 주춧돌이고 원유를 전량 수입하는 데다, 60% 이상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들어 오는 만큼 시시각각 변모하는 중동 전황에 따라 국내 주식과 금리 그리고 환율이 크게 휘둘릴 수 밖에 없다. 이와 같이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에 초민감 국가로 분류되다 보니 KOSPI가 하루에 10%를 넘나드는 극심한 등락을 보이고 있고, 달러-원 환율도 야간시장에서 1,500원을 넘어서기도 했다.

사실 역사적으로도 중동에서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하면 여타 지역과는 다소 다른 시장 반응이 종종 나타나고는 했다. IMF의 분석에 따르면 과거 주요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한 경우 초기에 주가가 하락하지만 1주에서 한달 정도가 지나면 반등하는 등 일시적인 조정에 그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걸프전의 단초가 된 1990년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이나 오일쇼크를 가져온 1973년 중동의 원유 금수조치의 경우, 6개월 이상 주가 하락이 이어진 데다 낙폭도 일반적인 경우에 비해 훨씬 컸다. 이번 중동 사태로 인해 아시아, 특히 한국 금융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불가피한 부분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전황을 신중히 바라보며 조금 더 냉정한 대응이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충돌이 3월을 넘기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물론 이란에 친미 차기 정권이 들어 설지는 불투명해 소음이 계속될 소지는 적지 않지만, 큰 고비를 넘기며 중동발 지정학적 위험은 시간이 갈수록 경감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 경우 환율이 1,480원을 추세적으로 넘기보다는 미국-이란 충돌 이전 수준으로 점차 되돌아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전쟁이 한달을 넘기며 장기전으로 돌입하고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가 길어진다면, 금융시장 불안과 자금이탈이 더해지며 1,500원을 다시 쉽게 넘어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가정한다.

문제는 하메네이의 차남인 모스타바를 이란의 차기 지도자로 결정함에 따라 트럼프의 보다 강도 높은 공격과 응전이 불가피해졌다는 점이다. 결국 미국-이란 전쟁 장기화를 반영해 국제유가가 베럴당 100달러를 넘고, 달러도 급격하게 강세로 다시 돌아서고 있다. 기대와 달리 중동 사태가 길어질 수 있다는 실망감과 긴장감으로 환율이 1,500원을 넘나들 가능성도 비례해 커졌으며, 금융시장의 극심한 변동성 확대를 당분간 감수해야 할 듯하다.

전망치	금주 예상 레인지	
	저점	고점
달러원	1480	1510
달러엔	157.0	159.5
유로달러	1.149	1.164

Economist 소재용

jyso@shinhan.com
02-2151-2638

Economist 백석현

seokhyun100@shinhan.com
02-2151-26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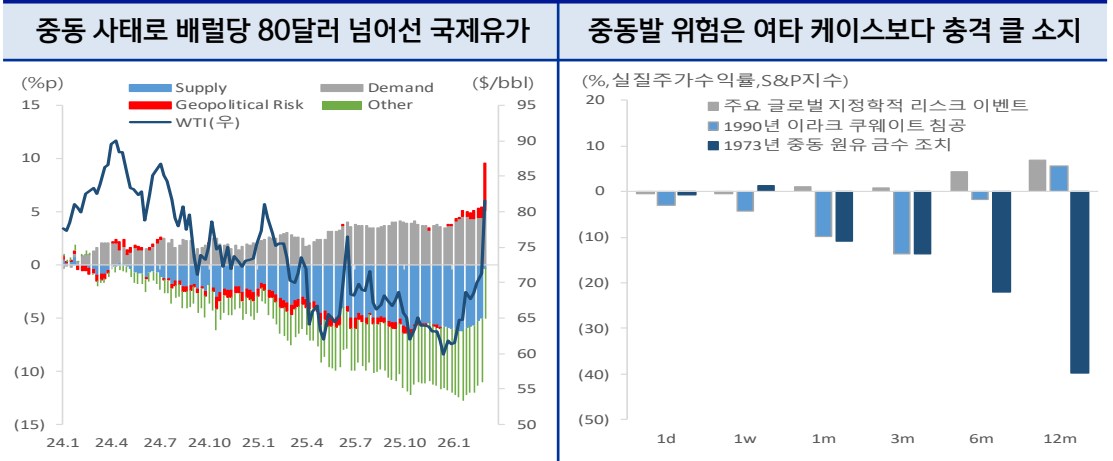
Weekly FX Economist View

갑자기 1,500원 시험대 오른 달러-원

그림으로 해석하는 매크로 관전 포인트

미국의 이란 침공으로 중동 긴장감 높아진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 봉쇄 우려 등으로 국제유가 급등. 공급 및 지정학적 위험 반영해 80달러 돌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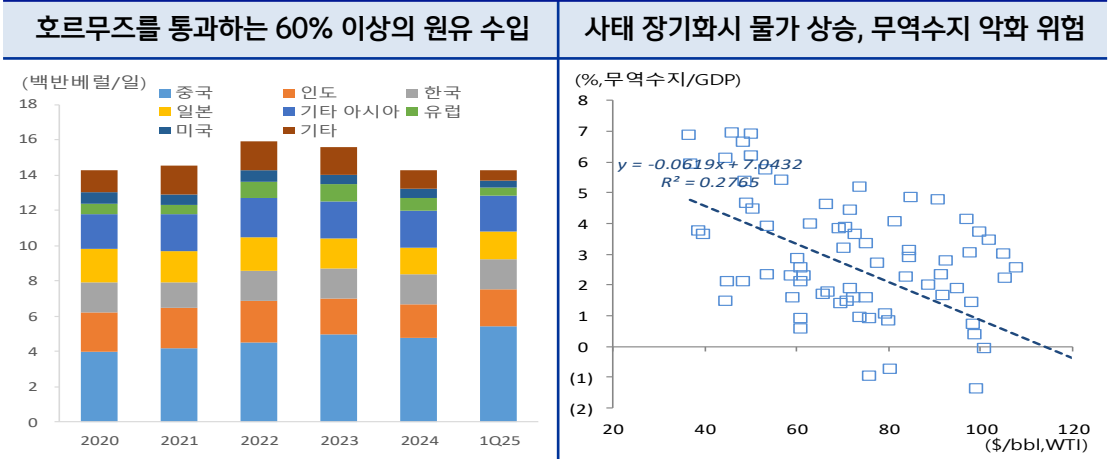
통상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 발생 시 단기 주가 조정으로 마무리되는 경향 높으나, 중동의 경우 조정 폭과 기간 커지는 사례들 있어 주의 필요



자료 : IMF, Bloomberg, Refinitive, 신한은행 S&T 센터

OPEC의 증산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유가에 한국 경제 및 금융시장 민감하게 반응. 중동-호르무즈 해협 의존도 높아 사태 장기화시 타격 불가피

원유 전량 해외에 의존하고 있어 유가 상승은 무역흑자 축소 요인. 시차 두고 물가 상승으로 반영되는 만큼 장기화될수록 스테그플레이션 전이



자료 : EIA, Bloomberg, Refinitive, 신한은행 S&T 센터

3월내 군사적 충돌 어느정도 일단락 될 경우 국제유가 100달러선 넘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 이 경우 원화 환율도 1,500원 상회 위험은 저지

그러나 중동 전황 및 이란 정치 구도 등 불확실성 커 예단하기 어려운 시점. 장기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대응할 필요

미국-이란 전쟁 시나리오별 환율 전망				
시나리오 (기간/확률)	국제유가	달러-원 환율	글로벌 금융시장	국내 경제
1. 국지적 충돌 및 소강 국면 (4주 이내/50%)	60~90\$/bbl	1,430~1,480원	안전자산 쏠림: 금, 미국채 수요 증가. 주식시장 조정 후 회복	물류 운임 및 보험료 상승. 에너지 단가 상승으로 CPI 0.3%p 상방 압력 발생
2. 확산 국면 및 봉쇄 장기화 (1~3개월/40%)	90~120\$/bbl	1,480~1,530원	리스크 오프 패닉: 글로벌 증시 급락. 신용국 자금 이탈 가속	무역 흑자 대폭 축소 위험. 스테그플레이션 우려
3. 중동 전면전 및 정권 교체 (3개월 이상/10%)	120~150\$/bbl	1,530~1,580원	시스템 리스크 경고: 스테그플레이션 공포. 시장 유동성 경색 위험	글로벌 공급망 마비 및 자본 유출 우려. 하이퍼 인플레이션 차단으로 정책 선회

자료 : Google, 신한은행 S&T 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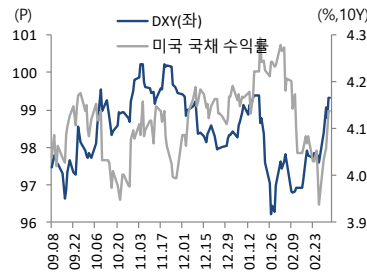
Weekly
FX Economist View

갑자기 1,500원 시험대 오른 달러-원

FX Navigat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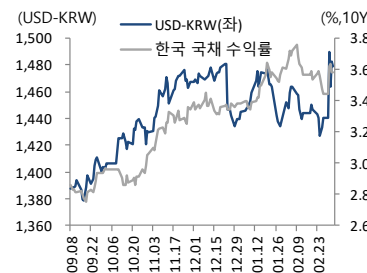
DXY(미달러 인덱스)



리뷰	미국의 이라크 침공으로 중동 불안 커지며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유가 상승으로 미 국채수익률 상승한 가운데 안전자산 선호로 미달러 인덱스 99P대로 상승. 전쟁 기간에 따라 가변적이나 장기전 가능성 배제하지 않아 상방 위험
프리뷰	미국 CPI/PCE 대기한 가운데 유가에 대한 민감도 커질 소지. OPEC 및 미국 셰일 증산 가능성 거론되고 있으나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한 유가 추가 상승 우려 노출. 이란 차기 지도자에 따라 전망 가변적으로 변할 소지 있어 당분간 진폭 커질 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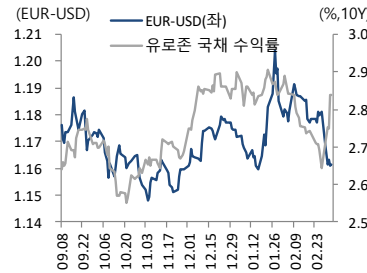
USD-KRW(한국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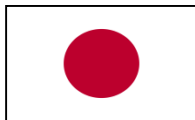
리뷰	2월 28일 미국-이스라엘이 대대적 공습으로 이란 최고 지도자 제거하고 중동 전역이 격랑에 휩쓸렸음. 연휴 지나 개장한 3월 3일 자정 즈음에는 1,500원 돌파. 이후 트럼프의 호르무즈 해협 통행 보장 메시지와 소강 국면 기대에 환율 하락하기도 했으나 재반등
프리뷰	중동 긴장 완화를 시사하는 증거 없으며, 이란의 물귀신 작전으로 중동 전역의 에너지 공급망에 차질 빚어져 유가 및 환율 상방 위험 상당. 美 재무부의 유가 안정 대책 발표에도, 관건은 중동 전쟁. 협상 국면 또는 출구 향하기까지는 아직 시간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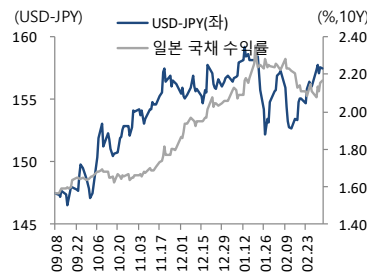
EUR-USD(유로화)



리뷰	이란의 주변국 공격으로 카타르의 세계 최대 LNG 수출 터미널에 차질 빚어져 가스 의존도 높은 유럽의 가스 가격이 3월 3일 치솟았음. 그 바람에 유로화가 1.153까지 급락. 이후 가스 가격 진정. 중동 관련 소식에 일희일비하며 주 후반 1.16 중심으로 등락
프리뷰	중동의 긴장 완화를 시사하는 증거는 아직 없으며, 출구까지는 아직 시간 필요. 출구 향한 뒤에도 후유증을 남으며 유럽의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커질 듯. 중동 사태가 출구 향하기 전까지는 강한 반등 없이 유로화 하단이 다시 열릴 위험 존재



USD-JPY(일본 엔)



리뷰	일본 경제에도 에너지 수입 구조상 중동 사태가 악재로 작용해, 엔화에 약세 압력 전가. 유럽 가스 가격과 유가 상승하던 3일 밤 환율이 158엔 육박한 뒤 후퇴. 주 후반 다시 환율이 꿈틀대고 있으나 미국의 에너지 안정 대책 기대로 다시 추춤
프리뷰	중동 사태가 출구 찾기 전까지는 환율 상방이 언제든 열릴 수 있음. 중동 사태로, 일본도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환경. 중동의 긴장 완화를 시사하는 증거는 아직 없으며 美 재무부의 유가 안정 대책도 미봉책에 불과할 것

자료 : Bloomberg, 신한은행 S&T센터

Weekly
FX Economist View

갑자기 1,500원 시험대 오른 달러-원

FX Navigat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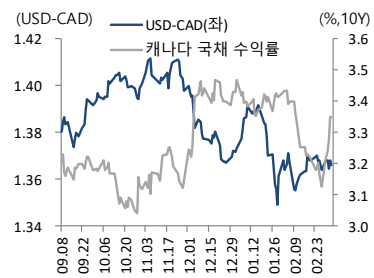
GBP-USD(영국 파운드)



리뷰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이란이 반격의 범위를 넓히면서 키프로스 소재 영국 공군 기지도 이란의 드론 공격에 노출. GBP는 유럽 가스 가격 급등했던 3일 1.325까지 하락한 뒤 반등해 주 후반 1.335 부근에서 등락 중
프리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초기에도 그랬듯 GBP는 유럽 경제 전망 및 유로화 영향에 직접적 노출. 중동 전쟁 출구까지는 아직 시간 필요해 GBP 하단이 다시 열릴 위험 존재. 출구 향한 뒤에도 후유증을 남으며 유럽 및 영국의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커질 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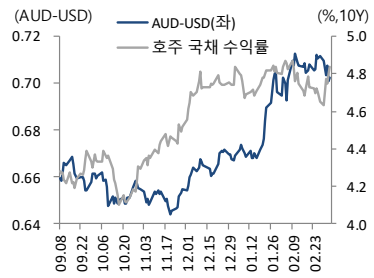
USD-CAD(캐나다 달러)



리뷰	에너지 수출국으로서 이번 중동 전쟁 따른 호르무즈 해협 통행 마비 사태에도 캐나다 통한 에너지 공급망은 안전. 위험자산 약세 뚜렷했던 3월 3일 환율이 소폭 상승했을 뿐 중동 전쟁 이후 환율이 방향성 없이 제한된 범위 내 횡보하는 배경
프리뷰	미국 연준에 비해 캐나다 BOC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은 제한적이나, 성장 여력 둔화 및 미국과의 불편한 관계, 2026년 여름 리브를 앞둔 USMCA 관련 미국의 강한 압박 가능성 등이 CAD에 부담으로 작용. AUD에 비해 상대적 약세 압력이 지속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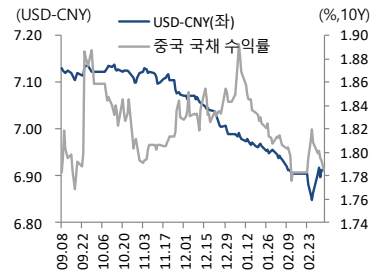
AUD-USD(호주 달러)



리뷰	원자재 수출국인 호주는 원유와 석유제품을 수입하나, 공급선이 분산되어 있고 정제 제품도 주로 싱가포르-한국 의존도가 높아 호르무즈 해협 통행 마비에는 간접 영향에만 노출. 다만, 위험자산 움직임에는 일정 부분 영향 받으며 한때 0.70 하회
프리뷰	호주의 공급망은 중동 의존도 낮아 경제에 직접적 타격 없지만, 글로벌 가격 충격과 아시아 정유 허브(싱가포르-한국) 차질에 따른 2차 충격은 부담. 중동 사태가 출구 향하기 전까지는 AUD가 하방 압력에 노출되겠지만 낙폭은 상대적으로 제한될 전망



USD-CNY(중국 위안)



리뷰	위안화 강세 속도를 조절하기 위해 2월 말 중국 당국의 미세 조치(달러 매수선물환시 부과되던 증거금 면제)로 환율 하락 멈춘 뒤 중동 전쟁으로 환율이 3일 밤 한때 6.94 상회. 이후 후퇴하며 주 후반에는 6.90 중심으로 등락
프리뷰	중국이 양회 통해 성장률 목표를 4.5~5.0%로 하향. 중동 전쟁에 불구, 4월 미-중 정상회담 앞두고 다음주 장관급 회담으로 의제 사전 조율 시작. 중동 사태에도 위안화 약세 제한된 채 다른 통화들 대비 상대적으로 안정적 흐름 유지할 듯

자료 : Bloomberg, 신한은행 S&T센터

Weekly
FX Economist View

갑자기 1,500원 시험대 오른 달러-원

금주 발표되는 주요 경제지표

경제지표 발표 일정						
	국가	이벤트	기간	예상치	이전치	중요도
3-09-2026 10:30	CH	PPI 전년비	Feb	-1.10%	-1.40%	90
3-09-2026 10:30	CH	CPI (전년대비)	Feb	0.90%	0.20%	98
3/09-3/14/2026	CH	통화공급 M2 전년비	Feb	9.00%	9.00%	84
3-10-2026 8:30	AU	웨스트팩 소비자대지수 MoM	Mar	--	-2.60%	81
3-10-2026 8:50	JN	통화량 M2 전년비	Feb	--	1.60%	74
3-10-2026 9:30	AU	NAB 경기대지수	Feb	--	3	71
3-10-2026 19:00	US	NFIB 소기업 낙관지수	Feb	--	99.3	62
3-10-2026 23:00	US	기준주택매매	Feb	3.85m	3.91m	87
3-11-2026 8:50	JN	PPI YoY	Feb	2.20%	2.30%	92
3-11-2026 21:30	US	CPI (전월대비)	Feb	0.20%	0.20%	97
3-11-2026 21:30	US	Core CPI MoM	Feb	0.20%	0.30%	78
3-12-2026 3:00	US	Federal Budget Balance	Feb	--	-\$94.6b	75
3-12-2026 21:30	US	무역수지	Jan	--	-\$70.3b	85
3-12-2026 21:30	US	주택착공건수	Jan	1351k	1404k	89
3-12-2026 21:30	US	건축허가	Jan P	--	--	62
3-13-2026 19:00	EC	산업생산 SA MoM	Jan	--	-1.40%	60
3-13-2026 21:30	US	개인소득	Jan	0.40%	0.30%	87
3-13-2026 21:30	US	개인소비지수	Jan	0.30%	0.40%	87
3-13-2026 21:30	CA	실업률	Feb	6.60%	6.50%	92
3-13-2026 21:30	US	PCE 물가지수 MoM	Jan	0.30%	0.40%	50
3-13-2026 21:30	US	근원 PCE 물가지수 MoM	Jan	0.40%	0.40%	61
3-13-2026 21:30	US	내구재 주문	Jan P	1.70%	-1.40%	91
3-13-2026 23:00	US	미시간대학교 소비자신뢰	Mar P	57	56.6	95

자료 : Bloomberg, 신한은행 S&T센터

주 : 날짜 및 시간은 한국 기준/P(속보치), A(잠정치), F(확정치)/중요도는 숫자가 높을수록 중요한 지표로 평가
US(미국), EC(유로존), UK(영국), GE(독일), JN(일본), CH(중국), CA(캐나다), AU(호주), SK(대한민국)

서울 외환시장

(단위 : 원)

구분	달러/원	위안/원
시가	1,479.0	213.6
고가	1,495.0	214.1
저가	1,467.8	213.0
종가 ¹⁾	1,476.4	213.6
전일비	8.3	0.8
평균환율	1,474.5	213.3
NDF(1M)	1,480.8	
거래량	139(억불)	305(억위안)

1) 서울외환시장 3시 30분 종가

주요 통화 환율

통화	환율	전일비
USD/KRW	1,488.20	24.90
JPY/KRW	940.14	-0.51
EUR/KRW	1,721.57	18.98
GBP/KRW	1,989.64	8.35
AUD/KRW	1,043.00	3.59
CAD/KRW	1,093.79	8.98
USD/JPY	157.78	0.19
EUR/USD	1.1618	0.0009

금리 장외파생상품 (원화)

(단위 : %)

만기	IRS	전일비	CRS ²⁾	전일비
1Y	2.942	0.008	2.475	0.04
2Y	3.188	0.029	2.685	0.04
3Y	3.310	0.037	2.825	0.04
4Y	3.380	0.042	2.910	0.04
5Y	3.435	0.047	2.995	0.04
7Y	3.490	0.045	3.025	0.03
10Y	3.532	0.041	3.010	0.04

2) 3개월 주기로 무위험지표 복리평균금리(Compounded SOFR) 3개월물과 교환되는 원화 고정금리

기준 금리 및 채권금리 (원화)

구분	종가	전일비
CD 91일물	2.81	0.00
통안 1년	2.65	+0.00
통안 2년	3.08	+0.03
국고채 3년	3.22	+0.04
국고채 5년	3.47	+0.05
국고채 10년	3.62	+0.04
국고채선물(3년)	104.89	-0.08

단기 FX Swap Point (원화)

(단위 : 전)

만기	SWAP Point	전일비	Implied CRS
1M	-124	9.00	2.74%
3M	-438	7.00	2.49%
6M	-910	0.00	2.43%
1Y	-1,560	-10.00	2.48%

금리 장외파생상품 (미국)

(단위 : %)

만기	국채	전일비	IRS ³⁾	전일비
1Y	3.53	-0.047	3.51	-0.019
2Y	3.56	0.013	3.38	0.006
3Y	3.59	0.034	3.35	0.016
5Y	3.73	0.046	3.42	0.027
10Y	4.14	0.042	3.68	0.018

3) 1년 주기로 무위험지표 복리평균금리(Compounded SOFR) 1년물과 교환되는 달러 고정금리

주요 증시

증시	종가	전일비	
KOSPI	5,584.87	+0.97	+0.02%
미국 DOW	47,501.55	-453.19	-0.95%
중국 상해종합	4,124.19	+15.63	+0.38%
일본 NIKKEI 225	55,620.84	+342.78	+0.62%
영국 FTSE 100	10,284.75	-129.19	-1.24%

기타

종목	종가	전일비
WTI (선물)	90.90	+9.89
금 (선물)	5,158.70	+80.00
3M TERM SOFR	3.67	-0.00
3M EURIBOR	2.05	+0.00
KOR 5Y CDS	25.04	-0.02

· 본 자료는 자료 제공일 현재 시점에서의 의견 및 추정치로서 실적치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를 유도할 목적이 아니라 고객의 투자 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매매는 본인의 책임하에 진행되어야 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자료는 당행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어떠한 경우에도 당행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재배포 될 수 없습니다.